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홈스테이 하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 주변에 버스정류장과 스카이트레인역이 있어서 교통은 편리했습니다. 도서관 건물만 사용했는데 강의실이 도서관 안에 있어 원서를 볼 수 있었고 스타벅스나 서브웨이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	전체적인 수업은 현대기본영어 강의를 듣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지 강사분께서 모르는 것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해 주시고 수업도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문법, 발표하는 방법,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과제는 자유롭게 일기를 쓰거나 필드트립에서 다 하지 못했던 것을 보충하는 것이었고 시간도 조금만 투자하면 할 수 있을 정도여서 부담도 없었습니다.
필드트립	- 박물관, 아쿠아리움: 볼 것도 많고 사진 찍기도 좋아서 재미있게 구경했어요. 아쿠아리움에서 시간 맞춰 바다사자 훈련하는 것도 보고 펭귄 만나는 것도 했는데 괜찮았어요. - 그랜빌 아일랜드: 비가 왔지만 괜찮게 구경한 것 같아요. 퍼블릭 마켓 안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좋았어요. 클램चा우더랑 타르트가 진짜 맛있었어요. - 캐필라노 다리: 여전히 비가 왔지만 부슬부슬 내려서 우비 쓰고 다녔어요. 입구에서 무료로 주는 걸 입었어요. - 컬링: 겉옷보다는 안에 옷을 따뜻하게 입는 걸 추천해요. 아무래도 스포츠라 겉옷은 조금 불편했어요. 컬링장 안이 생각보다 추워서 장갑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역시나 비가 많이 왔고 첫 주에는 눈이 많이 와서 매우 추웠습니다. 우산은 필수적으로 들고 다녔고 캐필라노 다리에서는 우비를 썼습니다.
안전	겨울이라 일찍 어두워져서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않았고 강사분도 여럿이서 다니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운타운은 사람도 많고 가로등이나 네온사인이 밝아서 괜찮았던 것 같았지만 홈스테이 주변은 어두워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숙소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반지하라 출입이 불편하고 방이 좁기도 했지만 따로 담요와 난로도 주셔서 괜찮았습니다. 집이 학교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니었지만 날씨 때문에 버스를 이용했고 규칙은 따로 없었습니다. 빨래만 화요일, 토요일에 해야 했고 그 외는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아침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자유롭게 시리얼과 빵을 먹었고 점심은 홈맘이 주시는 샌드위치와 과일을 주로 먹었습니다. 저녁은 다운타운에서 먹거나 홈스테이 가정에서 먹었습니다.
교통	생각보다 편리했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 버스 배차 앱을 알려주셔서 여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스카이트레인도 자주 오고 빨라서 편리했습니다. 구글 맵을 이용하니깐 길도 잘 찾을 수 있었고 컴패스 카드도 잘 이용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외식	500,000	
쇼핑	800,000	
관광	300,000	
합계	1,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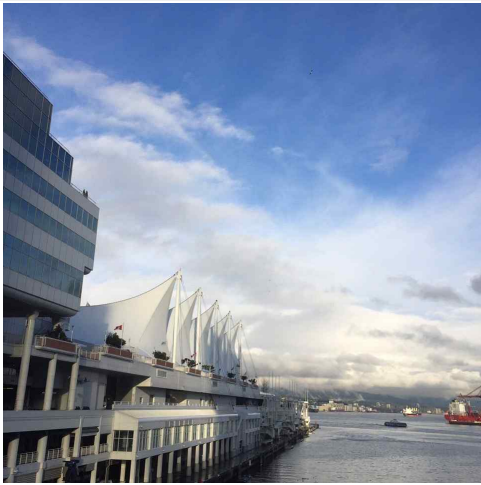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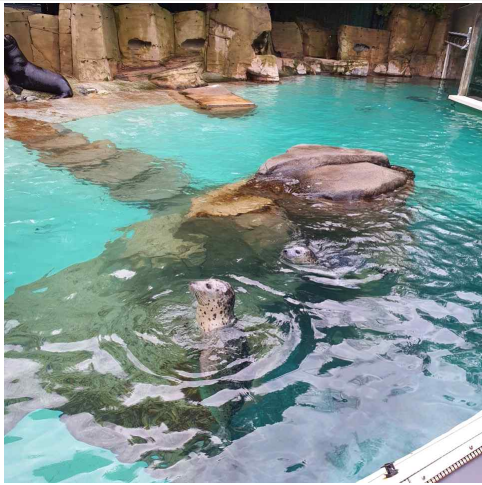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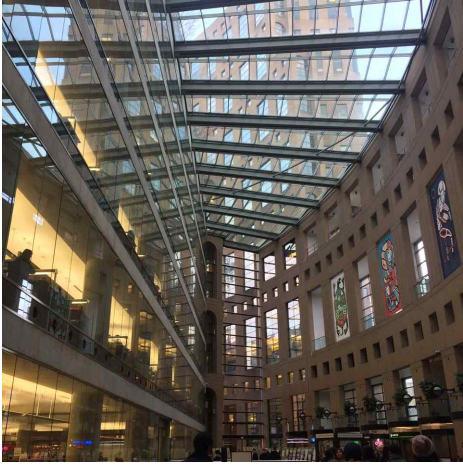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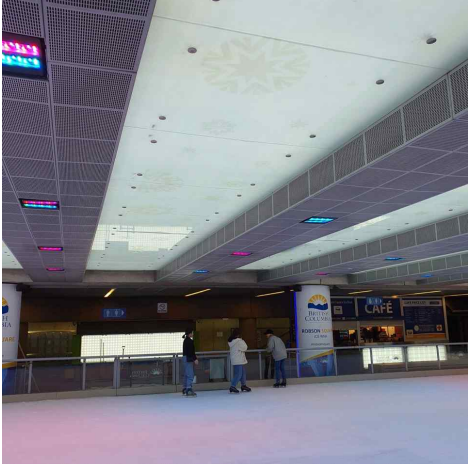
눈 오고 비 오는 날씨라서 추울 땐 엄청 추워요. 두꺼운 겉옷은 필수로 챙기는 게 좋고 장갑이나 모자도 있어야 해요. 생각보다 쇼핑을 많이 해서 캐리어 공간이 모자랐고 옷도 다운타운 쇼핑몰이나 아울렛에서 사서 입어서 짐은 너무 많이 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팁 문화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항상 넉넉하게 계산했고 물건을 살 때도 부가세까지 한 번 더 생각했어요. 비상약이나 밴드 정도는 챙겨도 좋을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새로웠어요. 저녁을 주로 밖에서 먹었는데 웨이팅 시간이 길긴 했지만 잼 카페 정말 추천하고요, 푸틴이랑 랍스타 피자도 정말 맛있었어요. 빅토리아를 못 갔었는데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에 또 캐나다를 가게 된다면 빅토리아 한 번 가 보고 싶어요. 다양한 인종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괜찮았고 사람들이 여유롭고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게 좋았어요. 3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기회가 된다면 더 오래 있고 싶어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캐나다 플레이스	밴쿠버 아쿠아리움

	
밴쿠버 공공도서관	UBC 앞 아이스링크장
	
캐필라노 다리	스탠리 공원